

A Study on Indexes and Indexing in Korea

우리나라 索引誌에 대한 研究

朴 文 子

〈梨花女大圖書館〉

編輯者註：本稿는 1976年 梨花女大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을 圖書館大會時 發表한 것을 要約한 것임.

I. 緒 論

現代는 各種情報資料의 幾何級數의인 增加로 인하여 知識情報가 폭발상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情報의 洪水상태 속에서 必要한 資料를 迅速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2次資料의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索引은 研究者나 學者에게 必要한 資料의 有無와 學問研究의 重複도 방지하여주므로 學術研究에 도움이되는 2次資料中의 하나이다.

索引의 定義에 대해서는 韓國圖書館協會의 “圖書館用語集” ALA의 “Glossary of Library Terms” 그리고 American Standard Association의 索引作成에 관한 규정에서 잘 說明하고 있다. 以上 여러가지 定義를 살펴보면 索引은 “特定한 情報資料에 포함되어 있는 各種情報의 所在를 찾을 수 있도록 Key가 되는 項目을 뽑아내고, 이에 대한 所在指示를 주어 一定한 順序로 排列한 것이다”라고 規定지을 수 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한날 情報의 所在表示를 주고 一定한 順序로 排列해서 各種情報의 所在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索引으로 취급하여 8·15解放以後부터 오늘 날까지 우리나라에서 作成된 여러 種類의 索引을 研究對象으로하고 外國(主로 美國)에 있어서의 索引의 發達 및 現況을 살펴 보고, 거기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索引의 發達現況 및 問題點을 調査·分析하고 노력하였다.

本 研究를 위해서는 文獻調査와 現地調査의 方法을 사용하였다. 文獻調査는 國內외의 單行本, 雜誌記事 및 參考圖書를 통해서 索引에 관한 文獻을 調査하였으며, 現地調査는 國會圖書館,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숙명여자대학교도서관과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에서 索引事業의 現況 및 問題點을 調査하였다.

II. 理論的 背景

索引은 많은 變遷過程을 밟아서 오늘 날의 索引으로 까지 發展하게 되었다.

索引의 發生은 405年 로마교황 Innocent II가 간행한 “Index Librorum Prohibitorum”을 시초라고 할 수 있으나 本格的인 ABC 順索引은 18세기, 즉 1737年 A. Cruden이 완성한 聖書用語辭典이라고 본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印刷術의 급속한 發達과 함께 오늘날의 색인의 기초가 된 美國의 Poole's System 이 완성되었으며, 20세기에 와서는 H.W.Wilson Co.가 “Readers Guide to Periodical Literature”를 비롯, 各種색인을 만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5년에는 UNESCO가 世界의 索引, 抄錄봉사를 위한 재단을 설립, 공헌하였으며 1957년에는 런던에서 G.Norman 등이 “The Society of Indexers”를 조직하여 오늘날의 索引의 國際的인 協力は 물론, 理論的인 면, 實際的인 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0년에 中央大學校 教育學科가 “韓國教育目錄”을 내어 놓았고, 1962년부터는 KO-RSTIC 이 “科學技術文獻速報” “外國特許速報” 등을 發刊하고 있고 1963년부터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이 發刊되었는데 이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은 본래는 韓國 圖書館協會에서 “學術雜誌索引”이라는 標題로써 發行하다가 1963年分부터는 國會圖書館으로 移館되어 “國內刊物記事索引”으로 改題하였고 1969年分부터 “정기간행물기사색인”으로 改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行政的으로는 1965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調査研究課를, 1967년에는 國會圖書館參考書誌課를 新設하여 索引事業도 하고 있다.

그밖에 各 大學의 大學院, 研究所 및 圖書館들의 노

력으로 색인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外國의 索引現況

外國의 索引現況을 考察하기 위하여 索引에 포함되는 資料의 形態에 따라서 雜誌記事索引, 新聞索引, 書評索引, 叢書·全集索引, 要語索引, 索引의 索引 및 特殊資料에 대한 索引으로 나누어 各 索引의 收錄範圍, 刊行頻度, 索引項目의 記述와 排列方法 및 특징을 살펴본다.

A. 雜誌記事索引

雜誌記事索引은 모든 主題의 雜誌를 전부 취급하는 一般雜誌索引에서 부터 점차적으로 特定 主題에 따라 나누어져서 主題別記事索引이 되거나 特定 專門分野의 索引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였다.

收錄範圍는 各 索引마다 달라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그 범위를 規定하기는 어려우나 대개 1900年 이후부터 各 分野에 관한 記事는 전부 찾아 볼 수 있는 셈이다.

刊行方式은 대부분 月刊이나 季刊 등의 逐次刊行方式과 1年, 3年 혹은 5年마다의 累加方式으로 發行하고 있어서 最新雜誌의 이용과 함께 週及的인 檢索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索引의 項目은 主題, 著者, 경우에 따라서는 記事名으로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索引項目間에 參照表示를 주고 記事를 收錄한 雜誌의 標題, 卷, 號, 刊行年, 月 등을 表示하여 주고 있다. 項目의 排列은 대부분 辭典體 排列로 되어 있다.

一般雜誌記事索引으로는 美國의 *Readers' Guide to Periodical Literature*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日本에는 國立國會圖書館에서 雜誌記事索引이 發刊되고 있다.

主題別 雜誌記事索引도 H. W. Wilson Co.의 주도적인 역할로 오늘날에는 거의 各 主分野에 主題別索引이 나오고 있다.

雜誌 1誌가 그 雜誌의 活用을 위해 單獨으로 索引을 내는 일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색인 못지않게 빠른 檢索手段이 되기도 한다.

B. 新聞索引

일반적으로 新聞索引은 雜誌記事索引과는 달리 모든 新聞을 總網羅한 索引은 하고 있지 않다. 그 까닭은 한 나라나 한 都市에서 發行되는 新聞이 취급하는 記事는 거의 同一한 것이므로 한 新聞의 索引이 그 나라의 모든 신문의 總索引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美國에서는 *New York Times Index*가 가장 광범위하고 함축성있는 색인을 하고 있다.

C. 抄錄索引

抄錄索引은 무엇보다도 速報性이 重要함으로 주로

科學技術分野에 많이 사용된다. 特히 現代는 科學技術의 급속한 發展으로 學者나 研究者에게 抄錄索引의 역할은 더 한층 크다.

美國의 *Biological Abstracts*, *Chemical Abstracts*, *Index Medicus* 등을 들 수 있다.

D. 書評索引

外國에는 書評을 專門으로 하는 書評誌가 많이 發行되고, 新聞이나 雜誌들도 많은 書評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들 書評의 檢索을 위해서 書評索引이 必要하게 되었다.

美國의 *Book Review Digest*, *Book Review Index* 등이 있다.

E. 叢書·全集索引

叢書·全集索引은 叢書나 全集등에 포함된 著作을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各 著者의 著者, 書名, 主題名 등에 의해 檢索할 수 있도록 한 索引이며 圖書館의 目錄카드 作成업무를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도움을 준다.

美國의 *Essay and General Literature Index*, *Index to Plays in Collections* 등을 들 수 있다.

F. 要語索引

外國의 要語索引은 聖書의 語句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聖書語句索引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에는 各種 資料에 포함된 要語를 分析, 索引하고 있다.

聖書에 對한 要語索引으로 Cruden의 *Complete Concordance*...를 들 수 있고, *New and Complete Concordance to Shakespeare* 처럼 個人 著作에 대한 要語索引도 있다.

G. 索引의 索引

이것은 索引이 여러 主題分野에 各種 形態로 발행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檢索手段으로 생겨난 圖書館 3次 資料로서 美國의 *An Index to Index*를 들 수 있다.

H. 特殊資料에 대한 索引

最近 圖書館資料로서 큰 역할을 하는 팜플렛, 크리핑 資料, 視聽覺資料 등 特殊資料에 對한 索引으로서, 美國의 *Vertical File Index*가 有名하다.

Ⅳ. 우리나라의 索引現況

A. 雜誌記事索引

우리나라의 一般雜誌記事索引으로는 國會圖書館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을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學術雜誌 및 政府의 定期·逐次刊行物에 收錄된 記事를 主題別로 索引하여 季刊으로 發行하고, 綜合累加索引이 없는 대신 學問分野別 累加索引을 내고 있다. 그러나 外國의 高度로 발달된 索引에 비

하여 볼때, 刊行頻도가 적고, 綜合累加索引이 없어서 利用이 번거로우며, 主題分類에 있어서 主題表에 나타난 主題가 아주 抱括的이어서 特定項目을 찾기에 는 곤란이 있다. 또한 所在指示에서 年度表示를 생략하고 있어서 일일이 標題紙에서 收錄年度를 확인해야하는 불편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實情으로 보면 이 정기간행물기사 색인은 우리나라 索引事業을 본 궤도에 올려놓은 색인이다.

國立中央圖書館의 學術論著總索引과 高大民族文化研究所의 韓國論著解題는 우리나라의 모든 著作物을 취급하고 있고 雜誌記事도 索引에 포함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장 정기간행물기사색인 및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의 카드식 색인도 있다.

그 밖에 韓末韓國雜誌目次總錄, 釜山市立圖書館의 雜誌索引目錄, 釜山大學校 圖書館의 學術論文索引集 등이 있으나 收錄範圍, 記述方法, 體裁 등에 있어서 많은 未備點을 가지고 있다.

主題別 雜誌記事索引으로는 定期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거의 없고, 韓國教育目錄은 解放이후부터 1973년까지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다.

社會科學分野의 것으로는 韓國圖書館關係文獻目錄, 韓國行政索引, 政治·行政·法律論文總目錄, 産業經濟文獻目錄, 韓國勞動關係關係文獻目錄, 韓國女性關係文獻總目錄, 韓國動亂에 관한 文獻目錄, 중공관계기사색인과 最近에 나온 法律文獻索引이 있다.

科學技術分野의 것으로는 醫學·藥學論文總目錄, 農學學術雜誌記事索引 등을 들 수 있다.

以上的 것외에 各 圖書館所藏資料中 主題別雜誌記事를 索引한 것으로 강원도 教育研究院의 教育자료목록, 公州教育大學圖書館의 전국교육대학 논문목록색인 충청남도 教育研究院의 교육연구자료목록, 서울대학교의 의국학술잡지색인(인문과학) 한국의환은행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집 등이 있다.

單獨雜誌의 索引으로는 이름있는 綜合誌와 文藝誌 및 學術誌들이 각각 自體索引을 내고 있는데, 世代誌總目次, 現代文學總目次 國會圖書館報總索引, 판보기사색인 등 多數 있으며 開關誌總目錄, 東光·新東亞總目次, 처럼 解放이以前的의 우리나라의 綜合誌에 대한 索引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B. 新聞索引

우리나라의 新聞索引으로는 東亞日報索引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主題名방식을 채택하여 이를 기본으로 한 辭典體索引으로서 우리나라 모든 新聞의 總索引 역할을 할 수 있는 索引이다. 아직까지는 1931년까지 단

을 색인하고 있다.

1976년에는 梨花女大에서 碩士學位論文으로 梨大學 報索引이 나왔다.

또 J.M. Elrod의 *An Index to English Language Newspapers Published in Korea*는 우리나라 最近世史研究에 도움이 되는 貴重한 資料를 색인하고 있다.

C. 抄錄索引

우리나라의 抄錄索引으로는 KORSTIC의 과학기술 문헌속보 外國特許速報와 마켓코리아社의 海外비지네스인덱스서비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半月刊, 月刊등으로 發行되고 있어 어느정도 連報性은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各各 外國刊行物을 對象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刊行物을 對象으로 하는 抄錄誌의 發刊이 要求된다.

D. 書評索引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書評만을 專門으로 하는 索引은 發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專門的인 書評誌의 發行이 없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국회도서관의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 書評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E. 叢書·全集索引

우리나라의 出版現況을 볼때 叢書, 全集, 選集 등은 다른 形態의 出版物보다 多量으로 出版되고 있는 實情이나 아직 이에 對한 索引은 나와있지 않다. 이들 叢書·全集類의 보다 迅速하고 效果的인 利用을 위해 이에 대한 索引의 發刊이 시급하다.

F. 要語索引

聖書를 기초로 한 聖句大辭典, 聖經語句辭典과 周易字句索引, 韓漢清文鑑索引, 高麗史索引, 三國史記索引, 朝鮮王朝實錄索引등을 예로 들 수 있다.

G. 索引의 索引

우리나라에는 2次資料로서의 索引自體가 그 數에 있어서 부족한 형편이므로 3次資料인 索引의 索引은 아직까지는 발행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H. 特殊資料에 對한 索引

우리나라는 非圖書資料가 圖書館資料로서 활발히 利用되고 있지 못한 實情이므로 이에 대한 索引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政府刊行物에 대한 索引으로 國會會議錄索引, 韓國法令索引簿, 大韓民國法令索引, *An Index to English Language Periodical Literature Published in Korea* 등과 大學刊行物에 대한 索引으로 숙대간행물 기사색인, 건대간행물기사색인 등을 들 수 있으며 韓國學論說索引도 예로 들 수 있다.

V. 結論 및 提言

以上 外國과 우리나라의 索引現況을 살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索引은 주로 美國을 中心으로 發達하였으며, 圖書는 물론 非圖書資料에 이르기까지 各種 資料를 對象으로 各種 形態의 索引이 發行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雜誌나 新聞 및 單行本에 限定되고 特殊資料에 對한 索引은 發行되고 있지 않다.

특히 美國의 경우, 各 專門分野의 主題別 索引이 定期的으로 發行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專門分野에 對한 本格的인 索引은 거의 發行되고 있지 않다.

刊別에 있어서 美國은 대부분 半月刊이나 月刊 등으로 情報檢索을 迅速히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季刊이나 年刊등으로 發行하므로 迅速성이 결여되고 있다.

美國의 경우, 대부분의 索引誌가 1年, 3年, 혹은 5年마다의 累加方法을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定期的으로 累加索引을 發行하는 方法을 쓰고 있지 않아서 檢索에 불편을 주고 있다.

索引의 體裁에 있어서 美國은 대부분 著者, 主題 또는 記事名으로도 檢索할 수 있도록 辭典體로 되어있으나 우리나라는 特定分類表에 의해 檢索할 수 있도록한 分類式索引이 많다.

索引項目 記述에 있어서 우리나라 索引誌의 대부분은 各種資料에 실려 있는 書誌的 事項의 不充分으로 말미암아 索引誌의 書誌事項도 만족할만한하지 못하다.

以上과 같은 點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우리나라 索引事業發展에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提言한다.

첫째, 各 專門分野에 對한 主題別 索引을 發刊하여야 한다.

둘째, 累加索引의 發刊이 必要하다.

셋째,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의 刊別을 月刊으로 하여

야 한다.

네째,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은 學術的인 資料는 물론 一般的인 것까지도 索引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섯째, 索引作成에 있어서 國際的인 基準을 따라야 한다.

여섯째, 색인使用法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 參 考 文 獻 >

國會圖書館, 編, “國會圖書館史(資料),” 國會圖書館報, 第11卷4號(1974.4) pp.49-75.
 木寺清一, 圖書館資料概說: 인포메이션 原資料を中心に, 東京: 明治書院, 1969.
 成 宅慶, “『정기간행물기사색인』에 대하여,” 도서관, 第171호(1972.8), pp.27-34.
 彌吉光長, 參考圖書: その原理から利用まで, 東京: 理想社, 1974.
 長澤雅男, 參考調查資料概說: 書誌と參考圖書, 東京: 三田圖書館學會, 1968.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韓國의 文獻情報活動, 서울: 1971.
 Collison, Robert Lewis Wright, *Indexes and Indexing*, 4th ed., London: Ernest Benn, 1972.
 Katz, William A.,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v.1: *Basic Information Sources*, New York: McGraw-Hill. 1969.
 Shores, Louis, *Basic Reference Books: an Introduction to the Evaluation, Study, and Use of Reference Materials with Special Emphasis on some 300 Titles*, 2nd ed., Chicago: A.L.A., 1939.
 Wynar, Bohdan S., *Introduction to Bibliography and Reference Work*. 4th ed., Rochester: Libraries Unlimited, 1967.

◎ 會費와 出版物 代金を 조속히 納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 發展을 위하여 努力하시는 會員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會員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會員 여러분께서 納付하는 會費와 出版物 代金は 協會의 運營은 勿論 圖書館 事業發展에 原動力이 되는 基本資金입니다.

여러 圖書館이 財政的으로 어려운 事情이 있을 것으로 아오나, 協會의 負弱한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와 그간 未納하신 會費와 出版代金 및 76年度 會費를 納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付託드립니다.